

신·재생에너지 사용비중 확대

홍석우 지경장관, 2차 에너지계획 통해 ... 융합산업도 주력

신·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확대된다.

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<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>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“2012년 2차 에너지 국가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원자력 발전과 신·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과제”라며 “신·재생에너지가 사업여건 등에서 어렵지만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확산에 많은 비중을 둘 것”이라고 1월20일 밝혔다.



또 “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아가고 있다”며 “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문화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아울러 반도체,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넘어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발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.

홍석우 장관은 “신·재생에너지를 비롯해 기계산업, IT, 콘텐츠 등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”며 “2012년 상반기에 제1차 융합산업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IT와 주력산업의 융합이 핵심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1/20>